

# 한국지식재산경영원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일본어교육 및 관리

저는 처음에는 저만의 향이 강해서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저만의 맛과 향을 알고 나면 중독성이 강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음식,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지지만 저만의 독특한 맛과 향 또한 잃지 않습니다. 몸에도 좋은 영양소를 두루 갖춘 저는 웃음 바이러스라는 가장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톡 쏘는 자극적인 맛 때문에 나쁜 오해를 사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입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야근을 하면서 뼈저리게 현실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지금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던 것이 점점 일의 성취감이 커지면서 이거 재미있네, 내일은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면서 점점 일의 흥미를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웠던 상사나 선배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나중에는 저에게 물어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제 분야에서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재산이 생겼습니다. 일본어라는 달랑 하나의 스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편집 프로그램은 물론 교정, 교열, 타이핑까지 출판 인쇄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독하게 실전에서 배우고 공부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적어보고 읽어보고 해도 실전에서 배우는 것만큼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기억도 많고 울고 싶었던 기억들도 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나 고마운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끈기와 인내를 물려주셨습니다. '아파도 참아라,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해 보거라,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저만의 특기이자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주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저만의 특기이자 장점을 다시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진심이 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귀사에서 되길 기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짐이 되는 인재가 아니라 보탬이 되는 힘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귀사의 끊임없는 개발 뒤의 그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함께 나누며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